

특별대담 | 안병영 전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자연에서 삶의 진정성을 추구하다 안병영 전 부총리를 만나다

대담자 |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기록자 | 정다혜 (한국행정연구원 대외협력실 연구원)



안병영 명예교수 (전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겸 장관)

2007~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991.01~1991.12	한국행정학회 회장
2003.12~2005.01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975.09~2003.12	연세대학교 행정학 교수
	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 (ASSREC) 회장	1972.03~1975.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998.03~2000.02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1970	빈대학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1995.12~1997.08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965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63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다

안병영 전 부총리는 은퇴 후,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속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서울 토박이인 그가 서울이 주는 편리함과 익숙함을 뒤로하고 선택한 곳은 집 앞으로는 저 멀리 위엄 있는 설악산의 기암괴석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뒤로는 나지막한 산을 직접 맞대고 있는 곳이다. 그는 매순간 자연의 변화무쌍함에 감탄하고, 그 경이로움에 겸손해지며, 자연의 풍요로움에 감사를 느낀다고 한다.



그가 과감히 ‘탈(脫)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온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항상 여러 일정과 갖가지 데드라인(deadline)에 쫓기고, 때로는 체면과 연고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는, 여러 상황들에 자신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비껴나 자연 속에서 온전히 자신이 꾸리는 생활을 그렸고, 정년 후 그것을 곧바로 실천하였다. 그의 아내가 설계한 집은 부부가 조출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능한 자연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때문에 집은 낮은 산자락과 직접 맞닿게 지었고, 벽면의 대부분은 통 창으로 설계하여 자연의 변화를 그대로 집에 들였다. 그는 서울에서는 무심히 지나쳤던 하늘을, 해와 달의 움직임, 빗소리를, 바람소리를 이곳에서는 온전히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거실 천장을 유리로 하여 밤에는 달의 움직임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
안 전 부총리는 떨어지는 빗소리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항상 무엇인가에 맞춰 쫓기듯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곳은 온전히 그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하루를 계획하기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하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넓고, 깊고, 유연하게 배워라

그는 인생을 크게 '3모작'의 시기라고 본다면, 70대인 자신은 3모작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3모작에 해당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안 전 부총리에 따르면 인생 1모작은 '일 중심의 시기'로 직장을 갖고 퇴직하게 되는 20대부터 50대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집중력을 요하는 '경성(硬性)의 일'을 하는 시기다. 인생의 2모작은 '보람중심'의 시기이다. 보통 50대 중반에서 70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며 서비스와 봉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성(軟性)의 일'을 하는 시기를 말한다. 인생의 3모작은 70대 이후의 삶으로 '자연으로의 회귀와 자아찾기'의 시기이다. 그는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1모작의 삶만을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적어도 70대까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 왔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무엇보다도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35세 이상의 직장인들이 다시 대학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는 우리 사회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배움을 위해 다시 교육을 받고 다시 직업현장으로 복귀하는 개념의 '회귀교육' 혹은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평생교육을 통해 개인은 '지속가능한 취업능력'을 확보하여 자신이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반열에 들어서야 한다고 하였다. 이 과정은 몹시 힘이 드는 일로 높은 지식 수준과 고숙련 노동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학자들이 강조하는 '넓고, 깊고, 유연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겸 본 지의 편집위원장이 권오성 박사가 안병영 전 부총리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라

‘Deep Play’ 껍치레와 상투적인 것들을 피하고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 진지함으로 의미를 찾는 것. 안 전 부총리가 그의 제자들에게 자주 언급하는 말이다. 그는 30여 년동안 교육자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보았다. 어떤 일에 도전해도 빛이 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는 ‘Deep Play’를 강조한다고 한다. 안 전 부총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획일적인 사회의 잣대에 맞춰져 가면서,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출세’나 ‘성공’에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선배로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만의 고유한 잣대를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바랐다. 물론 현실에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보람을 느끼는 일,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맞아 떨어지는 일을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인생의 행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이 점을 유념하기를 당부하였다. 그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에 매사에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전하였다.

공심(公心), 성심(誠心), 열심(熱心)으로 치열하게 살다

안 전 부총리는 학자, 교육자, 공직자 등의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30여 년 간 대학에 몸담았으며, 3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동안 2번의 공직생활을 하였다. 되돌아 보건데, 그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이 시간들을 매우 치열하게 보냈다고 하였다. 매 순간을 열심을 다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잡고 있는 3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공심(公心), 성심(誠心), 열심(熱心)이다. 이 3심은 그의 교수생활과 잠깐의 공직생활은 물론 그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모토로 작용하였다. 안 전 부총리는 어려서부터 자신 혼자보다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함께 잘 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꿈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의 장래 희망도 언제나 학자, 공직자, 언론인 등에서 맴돌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에게 공심(公心)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을 잡았다고 하였다. 안 전 부총리는 누구나 이러한 3심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기에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잊는다고 하였다. 그 역시 이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뒤돌아본다고 하였다.



강원도 고성외곽에 지은 '현강재(玄岡齋)'는 안 전 부총리가 이 집에 직접 붙여준 이름이다. 부인이 직접 설계하여 지은 단층집으로 어떻게 보면 황토집을 닮았다.





교육부 장관을 두 번 역임한 안 전 부총리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그의 진솔한 생각을 전하였다.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버려지지 않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안 전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1995.12-1997.8, 1993.12-1995.1)을 두 번 역임하였다. 이 시기동안 시행된 그의 교육정책은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learning교육, EBS수능 강의, 인터넷 강의, 대안학교 정착화,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등이 그가 장관 시절 시행하였던 정책들이다. 특히 그는 당시에는 아직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던 교육정보화와 교육복지에 큰 힘을 쏟았다. 이런 정책들의 추진은 그 간의 틀을 깨는 작업들이었고, 또한 교육자와 학자로서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공감을 얻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웠기에 어느 하나도 쉽게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정권이나 이념을 넘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한, 꼭 시도해야 할 정책이라는 확신이 설 때만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교육만큼은 이념을 배제하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과 현재 학생들이 어떻게 미래를 꿈꾸게 할 것이고, 어떻게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할 것인가가 최우선시 되어야지 당의 당리와 지도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중 e-learning 시스템의 도입은 거의 혁명이었다. 이것에 대한 수많은 반대와 의심에도 안 전 부총리는 “이 정책을 잘 정착시켜서 발전시켜 놓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버리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 나갔다고 한다. 그랬었기에 처음 장관 임기 시 애썼던 e-learning 교육 시스템이 자신의 두 번째 장관 임기 때 세계 최고수준 반열에 올랐을 때는 감개무량과 보람을 느꼈다고 당시를 회고하였다. 그는 아직까지 일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한국의 교육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한 평생을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은 안 전 부총리에게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안 전 부총리는 “그 쪽은 워낙 복잡한 동네”라는 전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우선, 단계별 교육의 필요성과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을 살펴보면, 그 아이들에게는 자기 시간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창의성을 기르고, 지·덕·체를 함양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길 반복할 뿐입니다. 어릴 때는 인성교육과 창의력 함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중점이 되어야지, 우리나라의 지나친 주입식 교육방법은 창의력의 싹을 자르는 일입니다. 또한 정권에 따라서 이념이나 통치자의 소신에 따라 과도하리만큼 수월성이나 형평성에 치중하는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은 둘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지양되어야 합니다.”

교육적 소외는 사라져야 합니다.

안 전 부총리는 요즘 공교육의 위기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학원폭력'과 공교육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를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이런 실태를 '교육적 배려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학원폭력은 사회의 뿌리가 되는 가정에서부터 학교까지 그 어디에도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따뜻하게 의지할 곳이 없어 발생한다는 것이 교육자로서 그의 견해였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가정, 학교, 사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보다는 함께 협력해서 이들을 감싸 안아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가 장관으로 재직 시, '대안교육', '대안학교'에 큰 힘을 쏟은 것도 제도권 교육에서 포용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나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교육적 배려가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러 의문과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된 대안학교들은 현재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양하게 성장하여 그 역시 뿌듯함을 느끼고, 현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런 대안교육들이 '공교육체제 내에서의 대안적 접근'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안 전 부총리는 교육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지론을 바탕으로, 제도권 교육에서 도저히 포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우리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무한 경쟁을 가르치기 보다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우고 올바른 성장을 도와야 하며,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교육적 소외' 속에 있는 아이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선공후사(先公後私)와 선의후이(先義後利)

안 전 부총리는 선공후사(先公後私)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다고 한다. 특히 그가 공직에 있을 때는 더욱 이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안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선공후사(先公後私)와 선의후이(先義後利)의 정신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 자체가 목적이 되어 정치가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참정치를 펼쳐 주기를 기대하는 바람에서이다. 또한, 안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많은 요소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직자와 위정자들이 나라 사랑, 투철한 공익관, 공인으로서의 자기절제, 평생학습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갈등해결을 위해서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보다 큰 틀을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KIPA**